

2021년도 3학년 력매전반 제주무빙 자료집

제작 및 편집: 이지섭, 최규민, 이기범

표지: 백늘푸른

- 비상연락처 -

김수진 010-4455-3452

강현영 010-2597-0285

여병권 010-7767-0705

숙소 : 어음분교196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림비로 376

목차

제주 무빙에 앞서

- 제주 무빙 개요
 - 일정표
- 일과 및 생활규칙
- 삼無 & 필수!

열흘간의 제주

- 제주도는?
- 주요 활동
- 일정 및 식단표
- 제주 사전 학습
 - (+) 참고도서
 - 서평
- 하루 나누기

무빙을 마치며

- 소감

2021 19학번 제주 움직이는 학교

3학년 움직이는 학교의 주제는 '세상 바라보기'입니다.

1학년 : 간디에서 등지틀기

2학년 : 너와 나에 대한 이해

3학년 : 세상 바라보기

4학년 : 가치 세우기

간디에서 등지 잘 틀었고 완벽하지만은 않지만 너와 나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으니 이젠 나의 가치를 세우기 전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제주로 가려고 합니다.

왜 제주여야 하는가?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오름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라는 특징을 가진 곳.

섬이라는 지리적 요건과 화산섬이라는 제주만의 특이한 환경에서 오는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 존재하는 곳. 한반도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이국적 환경을 가진 곳.

이와 동시에 조선의 변방으로 유배와 약탈의 역사를 가진 곳.

일제시대 수탈의 상처를 가진 곳.

일제시대를 거쳐 광복 그리고 4.3항쟁까지 대한민국 해방기를 관통하는 아픔의 역사를 가진 곳.

관광과 개발을 하느라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제주입니다.

이번 움직이는 학교를 통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꾸거나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일련의 문제들에 비해 우리의 움직이는 학교 일정은 매우 짧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곳 제주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며 '조금씩은 바꿀 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 것도 모르던 우리 아이들이 움직이는 학교를 통해 '무언가 잘못 되고 있다,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생각만 할 수 있어도 우리의 움직이는 학교는 성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도란?

북으로 목포와의 거리는 141.km, 북동쪽 부산과의 거리는 286.km, 이며 동으로 일본 쓰시마 섬과는 255.km,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본의 쓰시마섬 및 규슈의 나가사키현 서쪽으로 중국의 상하이와 마주하며, 남쪽으로 동중국해와 면한다.

한국 중국 일본 등 극동 지역의 중앙부에 있어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며 제주도 전체가 바다로 둘러싸였다. 수리적으로는 동경 126° 08' 126° 58', 북위 33° 06' 34° 00', 북단은 북위 34° 00'의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이며 남단은 북위 30° 06'의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다.

한국 최남단에 있는 도로서 제주도를 포함해 9개의 유인도와 개의 55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유인도는 우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비양도 횡간도 추포도 가파도 마라도이다. 남북 간의 거리가 약 3km, 동서 간의 거리가 약 7km, 로 동서로 가로놓인 모양이다.

러시아 중국 등의 대륙과 일본 동남아 등지를 연결하는 요충지이며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세계적인 휴양관광지다 특히 4면의 청정한 바다 위에 우뚝 솟은 한라산은 1,800여 종의 식물과 수천 마리의 야생노루가 서식하는 동식물의 보고다. 또 한일, 한미 정상 회담을 비롯해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새로운 국제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행정구역은 2행정시 7읍 5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청 소재지는 제주시 연동에 있다.

6월 2일(수) ~ 11일(금) 제주무빙 / 13일(일) ~ 18일(금) 타대안
 18일(금) ~ 19일(토) 마무리 모임
 무빙 발표 : 6월 19일(토) 오후 3시 후 귀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오전				청주공항 12시까지 집결	한라산 등반 (성판악)	햇핑크 돌핀스 (황현진)	동백작은 학교와 같이 여행
오후				무빙 숙소 OT			
	6	7	8	9	10	11	12
오전	제2공항 마을활동 (오은주)	4.3평화공 원	비자림 (그린쌤)	해양오염 비치코밍	모듬여행	일시 귀가	
오후		너븐송이 기념관 복촌 4.3길	포구기행 (판포포구)				
	13	14	15	16	17	18	19
오전		타대안 학교 탐방				타대안 끝.	발표준비
오후	타대안 입교					마무리숙 소 입교 --- 발표준비	무빙발표 (3시)

식단표 ; 식사 준비 모듬이 간식준비도 함께

A - 강아란, 김지후, 이기범, 이지섭, 서지호 B - 임소은, 여민지, 최규민, 김단오, 이릉수

C - 이채영, 강규림, 박석현, 김동연, 백늘푸른

	아침	점심	저녁	간식
6/2			소세지 야채볶음 된장찌개 A	제철 과일
6/3	누룽지 B	도시락	동그랑땡 김치찌개 C	핫도그
6/4	밥버거 A	도시락	간장불고기 미역국 B	버터감자
6/5	프렌치 토스트 요플레 C	매식	반찬털이 A	소떡소떡
6/6	간장계란밥 B	매식	제육볶음 콩나물국 C	시리얼+우유
6/7	모닝빵 + 잼 크림 스프&토마토 A	도시락	카레 유부장국 B	제철 과일
6/8	만둣국 C	도시락	닭갈비 계란국 A	빵
6/9	주먹밥 B	쌤들이 해주는 날	김치볶음밥 + 계란후라이 C	만두
6/10	계란찜 김 A	매식	닭봉조림 김치콩나물국 (반찬털이) B	과자
6/11	비빔밥 C			

일과표

07:00	기상 및 세면 / 식사준비
08:00 ~ 08:20	아침식사
08:20 ~ 08:45	식사당번&준비
08:45 ~ 09:00	아침청소
09:00 ~ 09:20	아침열기(일정알림)
09:20 ~ 10:00	출발 후 이동
10:00 ~ 13:00	오전 일과
13:00 ~ 14:00	점심 식사
14:00 ~ 17:00	오후 일과
17:00 ~ 18:00	이동
18:00 ~ 19:00	휴식 / 식사준비
19:00 ~ 19:30	저녁식사
19:30 ~ 20:30	식사당번&휴식
20:30 ~ 22:00	하루나누기&사전학습&간식
22:00 ~ 23:00	취침준비&소등(23:30)
24:00	취침

당번&생활규칙

반장	최규민	
기상	김단오	이채영
청소	박석현	여민지
퇴소	이지섭	강아란
소등&취침	서지호	강규림
핸폰 건기	이기범	임소은

핸폰 일과 시간 사용 금지(09:00~18:00) / 핸드폰 건기 24:00

(전원 off. 충전해주는 거 없음. 부탁 X)

차량 이동시 음악듣기만 가능.

핸폰 사용 문제로 일과 시간에 영향을 줄 시 조정은 필수!

빨래는 2일에 한 번 씩. 번갈아 가며. 흰&유색빨래, 검은 빨래

취침 준비시간 이후 숙소 건물 이탈 금지

현금&교통카드 소지 금지 - 모뎀 여행 때도 대중교통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협조바람!》 제주 도착 시 분실을 우려하여 현금, 각종 카드, 지갑, 신분증 등

귀중품은 교사가 걸어서 보관할 예정입니다.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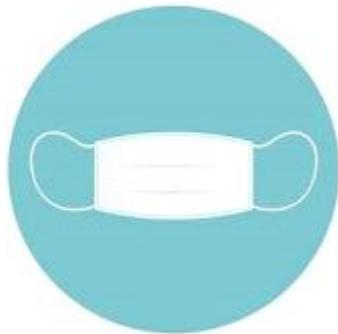
코로나검사 4회

1	5.28~29	가정학습 귀가 후 바로
2	6.11~12	제주 무빙 후 일시귀가
3	6.18	마무리모임 시 진단키트 사용
4	6.25~26	기말주간 입교 전 코로나 검사

삼無

“ 음주, 흡연, 성사건 X ”

어길시 경고 없이 귀가 조치



마스크 착용 필수!

경고 3회 누적 시 귀가 조치

1. 제주의 역사와 사회문제

현기영 변방의 우짚는 새: 제주에서 일어난 방성철의 난 이재수의 난을 다룬 역사소설 ,

현기영 순이삼촌: 4.3항쟁을 제주도민의 눈으로 본 대표적 역사소설

양규현 제주항쟁의 역사를 찾아서: < 4.3 >

허영선 제주 < 4.3 > : 짧고 얇고 무거운 책

이영권 제주 역사기행: 제목대로 상상하면 됨

이주빈 구름비의 노래를 들어라: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담은 사진집

정란희 무명천 할머니 4.3 항쟁 때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진아영 할머니 이야기 그림책

정용연 목호의 난: 고려말 몽골의 식민지배를 받던 제주도의 가슴아픈 이야기 만화책.

김중미 너영나영 구름비에서 놀자: 강정마을 주민들의 이야기. 동화책.

2. 제주의 관광개발과 환경문제

문경수 문경수의 제주과학탐험: 제주의 생태와 지질 지리에 대해 쉽고 재밌게 썼음

안혜연 버스타고 제주여행: 제목 그대로 대중교통으로 여행갈 때 매우 좋은 책

남종영 잘있어 생선은 고마웠어: 바다로 간 제돌이 의 구체적 내용 버전

햇핑크 돌핀스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인간에게 잡혀 수족관에 살던 남방돌

고래 제돌이가 바다로 돌아간 이야기. 그림책

이명애 플라스틱 섬 제주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주의 쓰레기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책 그림책.

김영갑 그 섬에 내가 있었네: 사진으로 감정을 말하는 것을 그를 통해 알게 되었다 가난한 루게릭병 환자 고 김영갑 님의 사진집 그의 사진이 있는 두모악에 가고 싶다

#제주 사전학습

제주 4.3

제주 4.3사건의 발단

제주도에서는 친일 경찰들이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 밑으로 들어가서 뻔뻔히 경찰 일을 하고 있었다. 해방이후 제주가 제주군에서 제주도로 승격함에 따른 미군정의 제주도에 경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다. (과도한 세금, 경제 수탈) 그러던 와중에 제주도민들이 미군정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3.1절 행사에 제주도민 3만 명이 참석했다. 그러다 행사 도중 6살 어린 아이가 경찰이 타고 있는 말발굽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곤 해당 경찰은 서로 도망을 가고 제주도민들이 해당 경찰을 뒤 쫓는다. 경찰서에 다다랐을 쯤 해당 경찰서에서 총기를 발포하고 6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당한다. 그들은 모두 등에서 가슴으로 관통하는 총상이 났고 이는 도망가는 제주도민들에게 발포했다는 말이 된다.

해당 사건 이후로 제주도에 교사, 일부 경찰들이 단체로 파업을 결정했으며 제주도지사까지 사표를 쓰는 사단에 이른다. 그러자 미군정은 응원경찰과 서북청년단이라는 깡패들을 제주도로 내려 보내서 자리를 메꾸었으며 서북청년단들은 제주도민들에게 횡포를 부린다. 남성들은 구타하고 여성들은 윤간하는 파렴치한 짓을 한다.

이 와중에 UN소총회에선 남한 단독선거 즉 분단을 결정했고 이 시기에 제주도에서는 사회주의 단체인 인민 위원회에서 김달삼이 350명을 이끌고 무장봉기를 하며 경찰서 12곳을 습격해 경찰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죽인다. 이 날이 바로 1948년 4월 3일이다.

4.3 이후의 한국 사회

사건 이후 서북청년단 등 우익단체 회원들은 국가유공자로 남한 정부의 보훈 대상자가 되었다. 제주 4.3 사건을 경험한 유족들의 회고에 따르면, '좌익도 우익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마구잡이로 죽여 버리는, 완전히 미쳐버린 세상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6.25 전쟁 발발 당시 제주도민들은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대한민국 해병대에 자원입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1970년대부터 제주 4·3학살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에서 줄곧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였으나 역대 정부는 이를 무시하였고, 오히려 금기시하였다. 이 사건을 다룬 소설인 《순이삼촌》의 경우 책은 금서가 되고 작가 현기영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어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2003년 10월 15일 4·3위원회가 작성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노무현 정부에 의해 채택되었다.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4·3사건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이 이뤄졌음을 인정하고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를 하였다.

2014년 1월 17일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의장 박근혜)를 통해 4월 3일을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입법 예고했다. 2019년 1월 17일 법원이 제주 4·3 사건 생존 수형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며 70년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했다..

4.3 실제 피해자 증언

홍순공 할머니(91)의 증언 - 당시 17세

“우리 어머니랑 조(곡물의 일종)를 베는데 순경 무리가 와서 총을 산 쪽에 쏘니까 그냥 담에 올라가서 “살려주세요.” 하고 손드니까 총을 안 쏘아. 순경이 자기한테 오라고 소리를 질러. 순경이 나 혼자만 데리고 공회당(마을 회관)에 가서 보니 입구에 이쪽은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앉히고 저쪽은 걷지 못하는 노인들하고 막 어린아이들하고 앉혀서 순경이 “너희들 인민공화국 만세 불러봐” 하니까 순경이 얘기하는 대로 인민공화국 만세를 불렀거든. 덜덜 떨면서 있으니까 이번에는 옆드리라고 하더라고, 옆드리니까 몽둥이로 엉덩이를 어떻게 때리는지 한동안 걷지를 못했어 막 울면서 그 때를 맞았어. 이제 또 일어서라고 하는 거야 “이제는 빨갱이 말 듣지 말자, 빨갱이 말 들으면 안 돼.” 라고 외치면서 서로 뺨을 막 때리게 했어. 아까 그 여자 하나, 남자 하나는 남겨두고 우리 보고는 집에 가라고 했어 그 여자와 남자는 길 한복판으로 가서 총으로 쏘아서 안 죽이고 칼로,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끔찍하게 죽여 버렸어.”

안인행(87)씨의 증언 - 당시 13세

“..... 순간 총소리가 요란하게 나자 바로 옆에 나란히 묶인 어머니가 나를 덮치며 쓰러졌습니다. 총에 맞은 어머니의 몸이 요동치자 내 몸은 온통 어머니의 내 몸은 온통 어머니의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총에 덜 맞은 놈이 있을지 모른다.” 면서 일일이 대검으로 짚었으나 그때도 난 어머니 밑에 깔려 무사했습니다. ”

“..... 만일 영화나 연극으로 만든다면 난 그날의 모습들을 똑같이 재연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도 눈에 선합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북촌리 4.3길

북촌리는 조천면의 동쪽 끝에 자리 잡은 해변 마을이다.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지만, 서우봉과 접해 '해동'이라는 마을이 서쪽에, 또 산간 선흘리 방향으로 '역수동'이란 마을이 흩어져 있기도 했었다. 북촌리는 일제시대에는 항일운동가가 많았고 해방 후에는 자치조직이 활성화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1949년 1월 17일, 세계사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민간인학살이 북촌리에서 자행되어 북촌리 주민 3백여 명이 희생당하는 등 북촌마을은 제주 4.3사건의 최대의 피해 마을 중 하나이다. 오랜 설촌 역사와 수려한 자연과 문화를 지닌 북촌마을은 4.3 당시 제주도민이 겪은 통한의 역사현장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 교육현장으로 조성,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 아름다운 제주도와 4.3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곳이다.



(7km 약 2시간 거리)

- | | | | | |
|--|--|---|---|---|
| 1 문주기일(4·3회생터)
Munju-gil (4.3 Memorial Center)
문주기일(4·3회생터)은 4·3 당시 북촌리 주민들이 피난처로 사용했던 곳이다. 문주기일(4·3회생터)은 4·3 당시 북촌리 주민들이 피난처로 사용했던 곳이다. | 2 북촌환해장성
Bukchon-haehyangsang
북촌환해장성은 4·3 당시 북촌리 주민들이 피난처로 사용했던 곳이다. 북촌환해장성(4·3회생터)은 4·3 당시 북촌리 주민들이 피난처로 사용했던 곳이다. | 3 가릿당(구짓머루당)
Gariet-dang (Gariet-maru-dang)
가릿당(구짓머루당)은 4·3 당시 북촌리 주민들이 피난처로 사용했던 곳이다. 가릿당(구짓머루당)은 4·3 당시 북촌리 주민들이 피난처로 사용했던 곳이다. | 4 북촌포구(4·3역사현장)
Bukchon-pogu (4.3 Memorial Site)
북촌포구(4·3역사현장)는 4·3 당시 북촌리 주민들이 피난처로 사용했던 곳이다. 북촌포구(4·3역사현장)는 4·3 당시 북촌리 주민들이 피난처로 사용했던 곳이다. | 5 난시빌레(4·3학살현장)
Nansi-billae (4.3 Memorial Site)
난시빌레(4·3학살현장)는 4·3 당시 북촌리 주민들이 피난처로 사용했던 곳이다. 난시빌레(4·3학살현장)는 4·3 당시 북촌리 주민들이 피난처로 사용했던 곳이다. |
| 6 Byeongdeung-san (4·3역사현장)
Byeongdeung-san (4.3 Memorial Site)
Byeongdeung-san (4·3역사현장)는 4·3 당시 북촌리 주민들이 피난처로 사용했던 곳이다. Byeongdeung-san (4·3역사현장)는 4·3 당시 북촌리 주민들이 피난처로 사용했던 곳이다. | 7 Poje-dan
Poje-dan
Poje-dan은 4·3 당시 북촌리 주민들이 피난처로 사용했던 곳이다. Poje-dan은 4·3 당시 북촌리 주민들이 피난처로 사용했던 곳이다. | 8 Madang-gae (4·3은신처)
Madang-gae (4.3 Memorial Site)
마당재(4·3은신처)는 4·3 당시 북촌리 주민들이 피난처로 사용했던 곳이다. 마당재(4·3은신처)는 4·3 당시 북촌리 주민들이 피난처로 사용했던 곳이다. | 9 Dangmat (회생터)
Dangmat (4.3 Memorial Site)
당맞(회생터)은 4·3 당시 북촌리 주민들이 피난처로 사용했던 곳이다. 당맞(회생터)은 4·3 당시 북촌리 주민들이 피난처로 사용했던 곳이다. | 10 Jeongji-podang-gilnami
Jeongji-podang-gilnami
정지포당 기념비(4·3역사현장)는 4·3 당시 북촌리 주민들이 피난처로 사용했던 곳이다. 정지포당 기념비(4·3역사현장)는 4·3 당시 북촌리 주민들이 피난처로 사용했던 곳이다. |

제주환경

2013년 남방큰돌고래 방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퍼시픽랜드에서는 어망에 걸린 돌고래들을 원래 방사해야 하는 것인데 불법으로 어민들에게 구입하여 돌고래쇼에 동원하였다. 한편 서울대공원은 이곳에서 불법 포획된 돌고래를 1999년과 2002년, 2009년 각각 금등이·대포·제돌이를 구입 또는 교환 방식으로 들여왔다. 불법 포획 사실이 알려진 뒤 여러 환경단체들은 돌고래를 방사할 것을 촉구하였고 서울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나이가 젊고 사육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당시 13세 제돌이를 방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퍼시픽랜드 측에 대한 형사재판을 통해 돌고래의 몰수 판결이 내려졌고, 이 판결은 1심, 2심에서도 유지되어 2013년 3월28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몇몇 돌고래가 재판도 중 폐사하였다. 4월 8일 돌고래가 몰수되었다. 몰수된 돌고래는 춘삼이(암컷·13세 추정)와 D-38(암컷·10~12세 추정), 태산이(수컷·18세 추정), 복순이(암컷·15세 추정) 등 4마리였다.[2][3] 춘삼이와 D-38은 건강이 양호해 동물자유연대가 인수하였고 나머지 2마리(태산이, 복순이)는 서울대공원으로 보냈다. 5월 11일에는 제돌이가 제주도로 옮겨졌다. 이후 성산항 가두리 양식장에서 야생적응훈련을 했다. 6월 22일 삼팔이는 파도가 부는 가운데 양식장을 탈출하였고 이후 야생 무리에 합류했음이 확인되었다. 7월 18일 오후 제돌이와 춘삼이는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후 동물자유연대에서는 태산이와 복순이로 명명된 두 개체의 야생 적응을 위한 먹이사냥 훈련을 위해 활어 먹이 구입 비용 3백만원을 부담하는 등 태산이와 복순이의 야생 방사를 추진했다. 태산이와 복순이는 2015년 5월 14일 비행기와 무진동 차량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을 거쳐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정주항으로 옮겨졌다. 결국 동물자유연대와 해양수산부등의 노력으로 태산이와 복순이를 2015년 7월 6일에 제주시 함덕해역 가두리에서 자연으로 방사했다. 7월 15일에 태산이와 복순이도 돌고래 무리에 합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제2공항

제주 제2공항

앞서 제주기협 9개 언론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과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5~17일 3일간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도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두 기관 조사 모두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는 반대 의견(51.1%)이 찬성(43.8%)을 7.3%포인트 앞섰다. 또 다른 기관인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반대(47.0%)가 찬성(44.1%)을 2.9% 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반면 성산읍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찬성 의견이 양 기관 모두 각각 32.6%포인트, 33.5%포인트 높았다.

제2공항 건설 반대의견

세계적 석학과 평화활동가 등이 제주 제2공항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에 서명했다. 서명에 참여한 세계적 석학과 활동가들은 "제2공항과 연계 도로를 건설해 관광객을 2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발상은 제주의 숲과 오름, 67만 제주도민의 삶을 위협한다"며 제주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개발이나 관광객이 아니라 도민 삶의 보금자리인 환경과 생태를 지속 가능하도록 보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세계 시민의 청원은 제2공항 건설의 영향이 제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의 생태, 인권, 평화, 기후 위기 대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제2공항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2공항이 들어서면 그 위치에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해 "제2공항이 공군기지가 되고, 현재 완공된 제주해군기지가 공군기지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주의 군사화를 지적했다.

제2공항 건설 찬성의견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 대상 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지체없이 도민의 숙원인 제2공항을 추진하고 국책사업을 완수하라"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제2공항 도민 전체 여론조사는 오차범위의 반대와 근소한 차이의 반대로 나타났으나, 이로 인해 국책사업의 중단이나 변경은 있을 수 없다"며 "이것은 도민을 찬.반으로 확연하게 갈라놓는 편 가르기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제2공항과 관련한 여론조사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 입장을 주장했다"며 "여론조사 방식의 부당한 편법성과 편향적이고 편파적인 언론을 앞세우는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을 찬.반으로 분열하고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산읍 주민들은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다려 왔다. 성산읍 주민들은 기다림에 지쳤다"면서 "도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으로 나아가는 길은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뿐이다. 국토부는 제2공항을 추진하고 국책사업을 완수하라"라고 요구했다.

#서평 - 바다, 우리가 사는 곳

[강규림] 바다 우리가 사는 곳 서평

어렸을 때 우림이가 돌고래 쇼를 보고 싶다고 해서 돌고래 쇼를 보러 간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모르고 있었다. 돌고래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힘든 수족관 생활을 보내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책을 읽어보니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돌고래들은 더 고생을 하고 지냈고 지난 나를 반성하게 되는 책이었던 것 같다.

평소에 돌고래 아이큐가 높다는 사실은 전부터 알고 있긴 했지만 이 정도로 높은진 몰랐다. 돌고래에 관심이 없어서 돌고래가 비인간인격체로 구별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책을 보니 돌고래가 과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서울대공원에서만 총 열세마리가 폐사했다고 했다. 어릴 적에 살던 넓고 큰 바다에서 갑자기 작고 좁은 수족관 바다로 왔으니 그 스트레스가 가늠이 안 간다. 그런데도 수족관 관리자들은 수족관 생활이 오히려 돌고래가 살기엔 더 안전하다고 말한다. 우리가 돌고래가 되어보지 않았는데도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건가? 의문이 들었다. 돌고래도 돌고래만의 생각이 있을 테고 괴롭고 할 텐데... 돌고래의 평균 수명은 40년이지만 수족관 생활을 하면 4년 만에 폐사해버린다고 한다. 돌고래는 사람들의 돈벌이로 이용이 된다. 자의식이 있는 돌고래는 정말정말 괴로울 것만 같다. 내가 돌고래였다면 정말로 괴롭고 우울하고 힘겨웠을 것 같다. 우리로 생각해 보면 갑자기 잡혀가 감옥살이를 하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끝없이 석방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돌고래 쇼에서 본 돌고래가 사육사와 소통하며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좁고 좁은 수족관이라는 감옥에서 돌고래가 살아간다. 바다로 다시 돌아간 돌고래가 많아서 좋지만 그렇지 않은 돌고래도 있다는 것에 답답하기만 한다. 사람들이 빨리 돌고래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얼마나 힘든지 알아주고 도와줬으면 한다.

[강아란] 바다, 우리가 사는 곳 서평

책을 읽기 전에는 그저 제주도에 사는 돌고래들의 아픔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책을 읽기 시작한 지 불과 5분 뒤에 바로 생각이 바뀌었다. 이 책은 단순한 아픔뿐만이 아닌 돌고래들이 처한 현실과 제주 바다 환경의 심각성을 내게 가르쳐준 책이었다. 이 전에는 돌고래 쇼를 보면 정말 신기하고 사람과 돌고래가 교감이 가능하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생각해본다면 그건 교감이 아니라 학대였던 것이었다. 원하지 않는 곳에 가두고 오직 사람들의 눈요깃거리가 되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전 세계의 돌고래들에게 굉장히 미안해졌다. 이 책을 보면 요즘에는 굳이 살아있는 해양생물을 수족관에 가둬놓지 않고도 해양생물을 볼 수 있는 디지털 수족관이 생겼다고 한다. 디지털 수족관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단순히 그 많은 수족관들이 다 사라

져야 하는 건가? 당연히 사라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면 그 일에 관련해서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건가? 라고 걱정했었는데 디지털 수족관이 생겼다니 정말 엄청나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진짜 수족관보다 더 디테일하고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다른 수족관들이 이런 디지털 수족관으로 전부 교체된다면 더 이상 고통 받는 동물들은 존재하지 않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임소은] 바다, 우리가 사는 곳 서평

내가 책을 읽을 때 항상 끝까지 못 읽지만 이 책은 꼭 참고 읽었다. 여러 가지 해양 동물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중에서 가장 신기했던 이야기는 ‘민물 돌고래’ 이야기였다. 이유는 민물에는 물고기만 사는 줄 알았는데 돌고래가 산다니 진짜 신기하다 하고 재미있게 봤던 거 같다.

어렸을 때 돌고래 쇼를 본 적이 있다. 딱 한 번 제주도 여행 갔을 때 봤다. 흔히 볼 수 없는 동물이기도 하고 돌고래가 사람 말을 알아듣다니 너무 신기했다. 돌고래들이 고향인 바다보다 몇 천배 좁은 수족관에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쇼를 하고 있었다니 충격이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돌고래를 보고 신기해했던 내가 부끄럽다.

제돌이가 바다로 돌아갔을 때 내가 다 기분이 좋았다. 만약 내가 돌고래였다면 너무 힘들었을 거 같다. 그냥 사냥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그물에 걸려서 영문도 모르고 좁은 수족관에 갇히고 혼나면서 쇼하다가 겨우 바다에 적응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이게 뭐지? 할 거 같다. 바다로 돌아가 다행이지만 만약 계속 수조에서 죽었다면 너무 억울할 거 같다. 바다로 돌아가서 다행이다. 돌고래는 아주 오래전에 만났던 친구도 기억한다고 하니까 아마 친구들을 만나고 잘 지내고 있을 거 같다. 진짜 다행이다.

이 책을 읽고 내가 든 생각은 수조에서 나온 돌고래들이 조금 밖에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로운 것들이 갇혀있는 돌고래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돌고래 해방운동을 하지만 해방이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속상하다. 관람객들의 즐거움과 돈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들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든다. 이 책과 관련된 기사와 뉴스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돌고래 해방운동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돌고래들이 바다로 가서 배설물을 많이 분비시키고 환경에도 도움을 주고 딱 좋을 거 같다. 하루 빨리 돌고래들이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박석현] 바다, 우리가 사는 곳 서평

저는요 이 책을 보면서 돌고래들이 수족관에서 되게 잘사는 줄 알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동물원에서 보던 돌고래 공연? 보던 것 들이 미안해지는 것 같다. 옛날에는 동물들은 참 좋아하고 동물원에서는 밥도 제공해주고 정말 좋구나.. 내가 만약

동물이 되면 동물원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동물원에 가면 거의 늘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근데 책과 영상 등을 보고나니 그 반대였다. 그동안 보던 돌고래 공연 사자 고기 먹는 공연을 재밌게 보던 내 옛날 과거들이 생각난다. 그게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지만 미안하고 그 사육사들이 되게 나쁘게 보였다. 근데 막상 공연을 보면 사육사들하고 돌고래들이 합도 되게 잘 맞추고 돌고래들도 재밌어 하는 것 같았다. 근데 이 책들을 읽고 나니 그럼 사육사들은 돌고래를 어떻게 사육하고 공연을 어떻게 만들어 냈지? 라는 생각을 하고 온갖 안 좋은 것 들이 생각이 났다.

[여민지] 바다, 우리가 사는 곳

나는 책을 정말 열심히 읽었다.
책 읽을 때 집중을 못해서 판생각만 하다가 책을 다 읽는데 이번에는 집중해서 이해 안되도 똑같은 거 계속 읽고.
놀랐던 것은
돌고래도 자의식이 있다는 거다.
돌고래도 자기가 잡혀서 쇼를 한 다는 걸 알 것이다.
어떤 돌고래는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하려고 했다는데..
돌고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까.
나는 돌고래가 그냥 동물 중에 똑똑한 동물인 줄 알았다.
책을 읽고 나니 말 못하고 바다에서만 살지 사람하고 똑같은 거 같다.
돌고래에 대해 솔직히 별 생각 없었는데 다시 보니 정말 불쌍한 것 같다.
사람들이 돌고래에 대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돌고래도 인격체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돌고래는 무슨 죄야.
근데 돌고래는 사육사도 싫어할까?
사육사랑 노는 돌고래도 있는데 사육사도 어쩔든 자기 괴롭히는 사람이잖아.
돌고래는 사육사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몇몇 돌고래들 바다에 방류 되고 잘사는데
사육사는 어떻게 기억에 남을까?
아무튼 핫핑크돌핀스는 의미 있는 단체 같다.
맨 처음에 1인 시위하신 대표 분이 대단하다.
나 같으면 돌고래가 불상해도 시위 안 할 텐데. 그것도 혼자서.
돌고래가 좁은 우리 안에서 얼마나 답답할까.
나 같아도 햇빛도 없는 좁은 방안에 가둬놓고 맨날 밥 받아먹는 쇼나 시키고 그러면 완전 우울할 것 같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살다 죽어야한다니..
돌고래를 다 풀어줘라.

[이기범] 바다, 우리가 사는 곳 서평

이 책을 읽기 전에는 핫핑크 돌핀스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몰랐고 어떤 단체인지도 몰랐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일단 맨 처음으론 돌고래가 많이 불쌍했다. 원래 바다 속에서 사는 돌고래의 평균 수명은 40년인데 아쿠아리움이나 동물원 같은 곳에서 돌고래 쇼를 하는 돌고래들의 평균 수명은 40년에 비해 4배나 적은 4년 밖에 못산다고 했다. 또한 콘크리트에 갇힌 돌고래들이 피부암이 생겼다고 한다. 그 돌고래들이 너무 불쌍했다. 돌고래 쇼를 하다 죽는 돌고래들은 누구에 가장일 수도 있고 누구에 자식일 수도 있고 가족이 있을 텐데 그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지 못하고 바다에서 잡혀 돌고래 쇼를 강제적으로 하는 게 말도 안 된다. 내가 어릴 때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에 가서 봤던 돌고래 쇼가 어릴 때는 신기했었는데 지금 보면 내가 왜 그런 비싼 돈을 주면서 돌고래들이 억지로 조련사에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신기하게 보고 있었는지 지금 와서 보면 이해가 안 된다. 우리나라 말고 유럽 일부나라는 돌고래쇼가 불법으로 되어있어 돌고래 쇼가 금지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돌고래 쇼가 금지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 돌고래 쇼가 금지 되었으면 좋겠다. 전에 환경부가 매주 틀었던 해안 쓰레기에 대한 영상을 봤을 때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물이 대부분이고 나머지가 그냥 쓰레기라고 했다. 그것을 보고 내가 버린 쓰레기들이 돌고래들 몸에 상처를 내게 하는 게 너무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가 많이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전에 무빙시간에 봤던 영상이랑 책 중에 영상이 더 눈에 잘 들어왔던 것 같다. 돌고래를 풀어줄 때 눈물이 날 뻔 했다. 너무 감동적이었다. 내가 예전 제주도에 갔을 때 바다에서 돌고래를 한번 봤었는데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이 행복해 보였다. 그렇게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을 좋아하는 돌고래들이 억지로 잡혀서 돌고래 쇼를 하게 하는 것이 많이 화가 난다. 핫핑크 돌핀스 단체에 가면 단체에서 하는 활동들을 열심히 잘 참여 해야겠다. 돌고래들도 빨리 보고 싶다. 이 책이 돌고래 말고도 다른 그냥 기후위기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어서 공부도 더 많이 된 것 같다. 끝

[최규민] 바다, 우리가 사는 곳

내가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수족관에서 사는 돌고래가 얼마나 짧게 사는지 잘 몰랐다. 돌고래들이 보통 40년을 사는 반면, 우리나라에서 사는 돌고래들은 고작 4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한다. 내게 이 사실은 엄청 충격적이었다. 왜냐면 수족관이든 바다든 어디서 살아도 보통 30년은 살 거라고 믿으며 살았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을 이제야, 이 책을 읽고 나서야 알게 된 것에 대해 죄책감이 들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한 것에 대하여 죄책감이 들었다. 바보 같기도 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인 것 같다. 돌고래들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전하고 싶다. 이참에 제주도로

갔을 때 미안하다고 소리라도 질러보아야겠다.

이 책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도 다루지만, 해외에서 일어난 일도 다룬다. 대표적으로 다이지 에서 일어난 포경산업을 다루는데, 굉장히 끔찍하다. 다이지 앞바다가 온통 새빨간 피로 물든다.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다. 일본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이유는 고래고기를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 단지 고래고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에서는 안 나오지만, 이들이 고래들을 학살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고래들의 주식 중 하나가 참다랑어이기 때문이다. 참다랑어는 가쓰오부시의 재료면서, 일본 내에서 소비를 많이 하기도 하고, 일본이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물고기들 중 하나가 참다랑어이기 때문이다. 그저 참다랑어를 좀 더 잡기 위해, 돈을 좀 더 벌기 위해 이러한 학살극을 벌이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포경산업을 당장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포경산업이 너무나도 큰지 별로 나아지지는 않는 추세이다.

난 이 책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체 왜 돌고래들, 고래들은 인간들에게 죽어야 하고 사육, 감금을 당해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전부 돈과 관련되어있다고 본다. 이 어업과 돌고래쇼를 해서 버는 돈은 막대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돈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채영] 바다, 우리가 사는 곳 독후감

처음에 책을 받았을 때는 생각보다 너무 책이 두껍고 어려워보여서 너무 읽기가 싫었는데, 글도 쉽고 사진도 많아서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일단 내가 알고 있던 바다로 돌아간 돌고래들은 제돌이가 다였는데, 제돌이 의외에도 복순이 등의 7마리정도의 돌고래들과 해외의 돌고래와 범고래, 그리고 돌고래 말고도 북극곰 등의 다른 동물의 자연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이야기와 죽을 때까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좁고 오래된 환경에서 지내야했던 동물들의 이야기까지 너무 많은 것이 담겨있어서 읽으면서도 계속 놀랐던 것 같다. 특히 새끼를 2번이나 잃어야했던 복순이의 이야기와 죽을 때까지 시설도 오래되고 더운 북극곰에게 맞지 않는 환경에서 살다가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려 했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북극곰 통키의 이야기가 제일 와 닿고 읽으면서도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추가로 더 알게 된 건 내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것보다 동물권과 해양오염 등의 문제들이 엄청 심각하다는 것이다. 예전엔 뉴스에 항상 비닐쓰레기를 먹고 폐사한 동물들이나, 플라스틱 빨대가 콧구멍에 꽂힌 거북이 등을 보고 해양오염, 해양생태계 파괴 문제는 다 비닐, 플라스틱 쓰레기가 제일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면 어업과 어업 과정에서 나오는 어업 쓰레기들이 제일 문제라는 것을 듣고 꽤 큰 충격을 받았다. 평소에 생선

을 즐기고 자주 먹는 편인데 무차별적인 어업으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되고 있다는 게 왠지 죄책감도 들고 당황스러웠던 것 같다. 그리고 중간에 나온 3D 수족관, 동물원도 동물들을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도 해결되고, 동물들도 잡혀있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하루빨리 인간과 동물, 바다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좋겠다.

[백늘푸른] 바다, 우리가 사는 곳을 읽고.

이번 3학년 제주도 무빙을 준비하면서 사전학습으로 핫핑크돌핀스라는 환경단체를 알게 되었다. 핫핑크 돌핀스의 주요 활동은 수족관에 갇혀있는 야생 돌고래들을 고향으로 보내주는 것이다. 큰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핫핑크 돌핀스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 그 활동을 기록하고 돌고래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 ‘바다, 우리가 사는 곳’이다. 책 첫 번째 내용은 돌고래도 사람과 같이 공감능력이 있는 비인간 인격체라는 내용이었다. 여러 가지 돌고래의 공감능력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고 돌고래가 공감능력이 있고 자의식이 강한 동물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내용에서 그럼 지금까지 돌고래들에게 사람들이 했던 모진 행동들을 다 아파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웠다. 전에도 돌고래는 아이큐가 평균 90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큐가 높다는 건 지능이 있다는 뜻이고 지능이 높다는 건 곧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더 생생하게 와 닿는 것이 아닐까 싶다. 돌고래에게 수족관은 전혀 맞지 않다는 내용에선 그래도 아주 세심하게 관리만 해준다면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했지만 바다에서는 40년을 사는 돌고래가 수족관에선 4년도 채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다. 이것도 꽤 충격적이었다. 그만큼 돌고래들을 혹사시키는 것이 아닐까 어서 빨리 돌고래들을 야생으로 돌려보내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돌고래는 바다에 먹이사슬을 유지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이다. 또 고래는 배설물을 통해 다량의 질소와 인을 바다에 배출한다. 그리고 이 인이 공급 되어야만 해조류가 번성할 수 있다고 한다.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식물성 플랑크톤도 고래 배설물에서 나오는 철분이 반드시 있어야 증식할 수 있다. 이처럼 돌고래는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인간은 돌고래뿐만 아니라 바다거북, 물범 등 바다에 생물들을 가만 두질 않는다. ‘시스피라시’ 영화리뷰를 시청하고 충격적인 사실이 한둘이 아니었다. 바다를 죽이는 원인은 다름 아닌 다랑어회였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바다는 한정적이고 많은 사람들은 전 세계의 바다에서 해양생물들을 무자비하게 죽인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들을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핫핑크 돌핀스가 지키는 돌고래는 어쩌면 바다 그 자체인 것 같다. 바다에 꼭 필요한 존재인, 없어서는 안 되는 돌고래를 지키는 것이 바다를 지키는 첫 발걸음이 아닐까 싶다.

[서지호] 바다, 우리가 사는 곳 서평

너무 슬플 책이라는 걸, 마음이 불편할 책이라는 걸 제목과 표지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내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아마 바다에서 살다가 쓰레기 때문에 죽게 된 펭귄 때문이었을 거다. 바다에 살고 있는 지구의 생명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 역시나 상황은 그닥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해양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안도했다.

동물원, 수족관은 초등학교 때 각각 3번씩 가봤다. 그 때만 해도 환경에 대해 이렇게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다. 인간의 입장에서 다른 종족의 생명체를 코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았으니까. 그 안에 동물이, 그 안에 고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니 어떻게 사육 당하고 있는지는 모르거나 모르는 척 했던 것 같다.

이 책에 나오는 말은 다 맞다. 사람이 다 이렇게 만든 거다. 모든 건 인간이 자초한 일이라는 걸 이 책을 보면서 더 깨닫게 된다.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으나, 생활에서 쉽지는 않다. 비닐도 마찬가지다. 비닐이 바다 속에 있으면 해파리처럼 보인다고 한다. 나도 환경을 위한 일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겠다.

돌고래의 언어가 인간의 언어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돌고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다고 하는데, 출산과 임신을 보니 더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출산을 자주 하지 않는 건 그 만큼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만큼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하지 않아 더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4년, '프리 윌리' 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제목은 말 그대로 자유의 윌리 라는 뜻이다. 이 영화의 내용은 한 소년이 바다에서 잡혀온 범고래와 사랑을 쌓으며 여러 시련을 함께 극복하고, 결국 윌리가 바다 장벽을 넘어 가족 곁으로 돌아가는, 범고래와 인간 사이의 우정과 공감, 사랑을 말하는 영화이다.

애초에 난 고래라는 생명체를 정말로 좋아한다. 귀엽기도 하거니와, 사람과의 관계 맺기가 해양 동물 중 거의 유일하게 가능해서다. 지난 2013년, 제주 앞바다에 방생되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난 2012년도에 그 친구를 만난 적이 있다. 1대1로 대면한 것은 아니지만 그 친구의 공연을 정말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난다. 그때는 내가 7살이었기 때문에 그냥 '우와 대박' 정도의 반응밖에 보일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계속 명령에 따라 움직이던 그 고래에게 강한 불쌍함을 느낀다. 사람으로서의 의식을 주입해보자. 만약 사람이 저러고 있다면? 그 생각만으로 나는 이미 고래에 대한 보호본능을 만들어냈다. 지금까지 바쁜 일상에 이들의 생각을 할 수 없었지만, 무빙이라는 기회가 왔으니 이번에 제대로 해보겠다. 파이팅

#서평 - 청소년을 위한 제주 4.3

[백늘푸른] 청소년을 위한 제주 4.3을 읽고..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시작으로 제주도의 아픈 역사는 시작되었다. 기마경찰이 탄 말에 차여 어린아이가 다쳤다. 그 걸 본 군중은 돌맹이를 던지며 쫓아갔고, 이를 경찰서 습격으로 오인한 경찰이 군중에게 총을 발포한다. 사람이 사람에게 경찰이 시민에게.

제주의 ‘퀘당 문화’는 곧 제주 사람들 모두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제주도 총파업이 시작되었다. 제주도의 이 퀘당 문화는 제주 사람들을 멍치게 만들었지만 한편에 생각으로는 이게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든다. 그만큼 너무나 안타까웠고 마음이 아팠다.

서북청년회가 제주로 내려와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해도 제주 사람들은 싸웠다. ‘살인 면허’라고 불리는 계엄령을 제주도에 선포해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학살해도 제주 사람들은 끝까지 싸웠다. 이것은 정말 제주도에서만 나올 수 있는 엄청난 민족의식인 것 같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4.3 사건은 거론되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기억해야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다. 이번 사전학습 준비로 제주 4.3에 대해 자세히 알고 나니 너무나 가슴 아픈 역사이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꼭 기억해야하는 역사인 것 같다.

[서지호] 제주 4.3 서평

내가 제주 4.3을 처음 안 것은 2015년도였다.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아빠가 렌트카를 운전하며 ‘제주에 왔으면 꼭 가야 하는 곳’이라며 네이게이션에 ‘제주 4.3 평화공원’을 검색했다. 그날은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다. 습하고 덥고 분위기도 최악이었다. 그리고 기념관에 들어가자 바로 눈에 들어온 건 국군 병사 마네킹이었다. 2015년 당시에 난 밀덕이었기에 뭔가 재미있는 곳인가 생각했지만 가면 갈수록 우울해졌다. 말 그대로 최악이었다. 그리고 이 책은 기념관에서 본 것보다 훨씬 우울하고 암울하고 상세했다. 관심 있는 역사인 것은 맞지만 4.3에 대한 역사는 자세히 알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읽어야 제주를 다시 가는데 어찌하겠는가.

우선 이 책은 청소년을 위한 제주 4.3 서적인지라 굉장히 상세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모르던 많은 내용이 담겨있었다. 더 다양한 현장 증언과, 더 상세한 썩어터진 당시 고위 간부 및 미군정에 대한 설명.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되었다. 4.3 사건은 해방 직후 미국의 태세 전환과 그에 따른 친일청산 실패, 그리고 친일파가 주축이 되는 정부로

인한 단독선거 등의 이유로 제주에서 일어난 좌익세력의 무장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극이다.

굉장히 단순하게 요약한 것인데, 이것만으로 4.3을 이해하려 들면 큰코다친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비인간적 폭력 행위, 그리고 정부의 심각한 외래화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건국역사가 얼마나 더럽고 참혹하고 꼭두각시 같은지 잘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은 별로 대단하지 않다. 건국 100년도 되지 않은 어린 나라이며, 강대국의 힘에 억눌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억지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현재는 공산주의와의 최전선으로서 강대국의 카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 감히 건강한 나라라 할 수가 없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 사상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은 없지만, 당시 조선인들이 어떤 성격의 사상을 갖고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 굉장히 단순하다. 친일청산, 계급제도 파기, 자본, 공산도 아닌 민주주의. 말 그대로 백성이 주인인 나라.

보통 난 이런 역사를 들으면 절대 잊지 않겠노라고,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처벌에 힘쓰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지만 제주 4.3 역사는 기억하기가 싫다. 괴롭다. 더 알기 싫은 역사다. 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 하지만 잊어버린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니, 당연히 잊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무빙을 계기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슬퍼해야겠다. 이 책은 다시는 안 읽을 듯하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괴롭다. 듣고 있기가. 피해자 분들 꼭 한 푸시길

[김단오] 청소년을 위한 제주 4.3 서평

어린 아이가 경찰의 말발굽에 치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러 가자 경찰서에선 제주도민들을 향해 총을 발포했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죽는다. 이에 대해 사람들이 분노하고 제주도 사람들은 파업을 하고 투표도 거부한다. 그리고 그 시기에 김달삼이 이끄는 사회주의 단체가 무장봉기를 하고 미군정에선 응원경찰과 서북 청년단, 군인들을 내려 보내고 제주도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한다.

나는 초등학교 때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워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많이 슬프고 화가 났었다.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 대학생 분들이 존경스러워 감동했었고 그런 사람들의 목숨을 쉽게 앗아가 버리는 전두환 정권에 분노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낸 민주화에 감사한다. 나는 4.3 사건을 자세히 알게 된 것이 이번 3학년이다. 자료조사도 하고 이 책도 읽었다. 난 5.18 사건이 가장 비극적이고 참담한 사건인줄만 알았다. 이번에 알게 된 4.3은 전혀 사건의 결 자체가 달랐다. 그냥 사람들

이, 제주도민들 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살당한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 단체와 미군정의 군인, 경찰들의 싸움이기도 했으나 그 과정에서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 심지어 노인과 어린이들 까지도 무차별 적으로 빨갱이 ‘일 수도 있다.’ 는 이유만으로 그저 그런 분명하지 않은 심증만으로 몇 천 명의 사람이 죽는 다는 것이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니 설령 그들이 말하는 빨갱이 즉 사회주의자들이더라도 그저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다는 것이 그게 너무 화가 났다. 군인들은 계엄령 즉 살인 면허를 가지고 있었고 제주도민들은 그저 아무런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가길 기도했다. 그들을 잡아가 고문하였고 여성들에게는 성폭력을 일삼았으며 어린 아이가 부모와 같이 총살되기도 했다. 책 중간 중간에 있는 그림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 아팠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며 반인륜적 행위였다.

[임소은] 청소년을 위한 제주 4.3 서평

이 책은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짧은 책이다. 내가 역사에 관한 책들은 좀 못 읽는데 다른 책들의 비해서는 잘 읽힌 거 같다. 제주 4.3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인지 알게 되었다. 1947년 3월 1일에 3.1절 28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아이가 경찰이 타고 있던 말 뒷다리에 치여서 제주 주민들 화가나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사과를 하지 않았다. 주민들을 겁 줌려고 총을 쏘았는데 사망자가 6명이나 발생하였다. 이 사건이 제주 4.3의 시작이었다. 내가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윤희춘 여사의 영원한 기다림’ 이란 글을 읽었는데 가족들이 다 떠나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시체뿐이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까지 억울하셨을 것 같다. 죄 없는 나의 자식들이 왜 이렇게 죽어야했나 고문당해서 죽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어릴 때 제주도에 많이 갔었는데 그럴 때 마다 제주 4.3 박물관에 갔었다. 항상 빠짐없이. 어릴 때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죽었구나 나쁜 사람들 왜 사람들을 죽이지? 라는 생각을 했다. 이게 언제 어떻게 생긴 일인지는 잘 몰랐다. 분명 아빠가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 이해를 잘 못했다. 이 책을 읽고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생긴 일인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들이 희생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솔직히 내가 이 사건에 대해 다 안다고 말을 할 순 없지만 아주 간단한 것들은 알게 되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했던 4.3 사건을 모르고 있었던 내가 부끄럽다. 이 사건을 그냥 사람들이 많이 죽은 날로 가볍게 생각했던 것도 부끄럽다. 이번 무빙 때 제주를 가서 이 사건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

[강규림] 제주 4.3 책 독후감

초등학교 때 제주 4.3에 대해 배우긴 했었다. 4.3 관련 영화를 본 적도 있고 그렇다. 4.3이 일어난 이유와 그로 인해 얼마나 피해가 컸는지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 책에선 사건 발생의 한참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더욱 더 잘 읽혔던 것 같다. 중간 중간 퀘달이나 임시정부 같은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들은 중간에 설명을 해 주는데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이거구나라고 잘 이해가 되는 것 같다. 어릴 적부터 알고 있던 사건이라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란 책에 있는 게 비슷할 줄 알았지만 좀 더 참혹했다. 정말로 우리가 잊어선 안 될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알고 있던 자연과 휴양지의 제주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학살터인 제주라는 걸 알고 나니 슬프기 마련이었다. 예전부터 가족여행으로 제주도를 자주 갔었는데 내 기억 속에 제주는 바다가 예쁘고 초록색이 많은? 그런 섬이었는데 정말 안타까웠다. 빨갱이 섬이라고 불리며 오해를 샀던 그 당시 제주도민들은 얼마나 슬픈지 가늠이 안 갔다. 불시로 투표함 두 개나 불타버려 이승만 정부는 그걸 도전으로 받아드리며 학살을 한 건데 같은 나라 사람이 정말 같은 나라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무빙을 갔을 때에는 마냥 여행을 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제주의 참혹함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정말 유익한 책이었던 것 같고 내 기억 속에서 제주 4.3 사건의 일어난 계기와 어떻게 됐는지 점점 잊어갈 때 즈음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채영] 4.3 독후감

처음에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솔직히 내가 4.3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굳이 책을 읽어야하나 싶었다. 하지만 이 책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담겨있었고, 내가 아는 4.3사건은 정말 일과에 불과했다. 첫 번째로 난 갑자기 일본군들이 와서 제주도민들을 학살한 줄 알았는데, 그 전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크고 작은 사건들이 하나 둘 모여 4.3사건이 발생했다는 것과, 많은 제주도민을 고통 받게 한 사람들이 일본군도 있었지만 그 위에는 미국과 남한 정부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두 번째는 그냥 글로만 보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만 싶은 사건들을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와 피해자 등의 사람들의 인터뷰를 글로 같이 써놓아서 글만 읽고도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고,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었다. 특히 가족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본 분들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이야기 하시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세 번째로 4.3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유가족들에게 아직도 돌아가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 제주도가 그다지 큰 섬이 아닌데, 희생자가 얼마나 많았으면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분들이 계시나 싶었다. 책 자체가 그렇게 길고 어려운 책이 아니어서 접근하기도 편하고, 이해하기

힘든 말들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이 책에 나오는 기념관이나 특정 장소들을 무빙 때 간다고 들었는데,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책을 읽고 나니 그 장소들이 좀 다르게 보여서 꼭 가보고 싶다. 남은 사건의 흔적들과 유가족, 관련자들의 상처도 하루 빨리 치유됐으면 좋겠다.

[김지후] 제주 4.3 서평서

제주 4.3에 대해 나는 관심이 없었다. 어떻게 추모일로 남게 되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자세히 알지 못했다. 옛날에는 역사를 좋아했었고, 안 믿기겠지만 지금도 할 것이 없을 시간에는 역사관련 영상들을 찾아본다. 근데 누군가의 강요를 받고 역사를 공부하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필수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제주도를 가지 못한다. 이것을 빠르게 끝내기위해 재미없게 책을 읽을 것이다. 이 책은 상세한 내용이 나오진 않았던 거 같아 그런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하지만 내가 모르던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고, 모르는 용어들이 많아 지호가 알려주면서 책을 읽었다. 여러 명의 고위 간부와 미군들의 대한 설명을 지호한테 들었고, 이해를 하게 되었다. 4.3 사건은 우리가 일본에게서 해방된 바로 후 미국의 비협조적인 우디르로 친일파를 청산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것에 대해 한 가지 말하자면 친일파를 청산 하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대안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또 친일파를 청산하는 과정에 여러 명의 사람이 억울하게 친일파로 몰리고 학살당했었을 거 같다. 찰리 이러한 미국의 태세전환으로 대한민국의 여러 명의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거 같다. 여기서 그만했으면 좋았겠지만 실패로 인해 친일파가 다 윗사람이 되는 정부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세력을 이용해 좌익세력의 무장봉기를 진압하는 과정 중 발생한 민간인 학살을 벌인다. 이 시대에 역사가 폭력으로 가득 찼다고 해도 나는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건국역사가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한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할 말은 없다고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이지섭] 청소년을 위한 제주 4.3사건서평

책을 읽기 전에는 사건의 배경, 전개, 의의에 대해서 모르고 이름만 들어보았다. 평상시에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 또한 없었으며, 인생에서 중요한 딱히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은 후에는 제주 4.3사건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소중한 시각과 관찰하게 된 계기를 가졌다. 이 책에서의 내용 중 수많은 유아, 임산부, 노인 즉 사회적 약자들까지 살해하며 죽이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통해 제주도를 집권하였다. 제주 4.3사건으로 수많은 제주민의 고통, 현실, 학살 과정 등을 통해 많은 연민과 공익보다는 사익을 중요시하는 개개인들의 욕망을 통

해서 고통 받았다는 현실에 감정이입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노력하게해준 책이다. 이 책은 어려운 문장 대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장을 통해 쉽게 이해하며 과거의 사건과 만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역사적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이나 역사에 흥미가 없는 사람에게 추천을 하고 싶다.

[이기범] 청소년을 위한 제주 4.3

이 책은 청소년을 위한 제주 4.3 이지만 청소년인 나한테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다 읽을 수 있을까 걱정되었다. 하지만 최대한 읽어봤다. 4.3을 읽은 나한테 4.3은 악몽 자체였다. 왜냐하면 그렇게 착한일 하고 멋진 경찰들이 멀쩡한 사람에게 총을 쏜다는 것이 너무 무섭고도 어이없고도 화가 치밀어 올랐다. 4.3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3.1 운동을 하다가 말을 타고 있던 경찰이 6살 정도 되는 아이를 치고 가서 아이가 다쳤는데 아무 사과도 없이 그냥 경찰서로 갔다. 그래서 그것을 본 시민들이 화가나 경찰서로 따라갔는데 그냥 왜 사과 안하고 그냥 가냐 라고 물어보려 했지만 경찰서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것을 본 경찰이 위협적으로 느껴서 시민들에게 총을 쏘았다. 그래서 6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좌익 사람들이 남한단독 선거 반대를 주장하며 시위한 것을 공산 폭도 했다. 몰아 무차별 진압하면서 제주시민을 모두를 공산빨갱이로 몰아 학살했다. 이후 친일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이승만을 강력 옹호하였다. 이승만이 제주시민들을 다 죽이기 위해 서북청년단이라는 깡패 들을 제주에 경찰과 같이 풀어 다 학살했다. 이것을 보고 나는 충격을 먹었다. 왜 사과만 했어도 이렇게 큰일은 없었을 텐데 왜 구지 사과를 안했나 너무 이해가 안됐다. 나였으면 그냥 바로 사과하고 병원까지도 태워다 줬을 것이다. 이승만도 나쁜 놈이다. 이때를 틈타서 지가 정권 장악하려고 깡패와 경찰들을 풀어서 다 학살을 했는지 그렇게 정권을 잡고 싶었나 싶었다. 또한 장기집권 부정선거를 4.19 혁명까지 발생했다. 진짜 너무 말이 안 된다. 내가 16년 동안 살았을 때 가장 컸던 집회는 촛불 집회였다. 그 사건을 거쳐서 지금처럼 잘 지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절대로 이 사건을 잊지 않고 동생들이 물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줄 것이다.

[박석현] 제주 4.3 서평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제주 4.3에 아예 알지 못했다. 제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잔인한 일이 일어났는지... 책을 읽어보면 제주 4.3이 일어나기 전부터 제주 4.3사건이 일어나기 까지를 아주 잘 설명해준다. 뭔가 지루한 글을 읽는 다기 보단 재밌고 슬픈 소설을 읽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책 중간 중간 '해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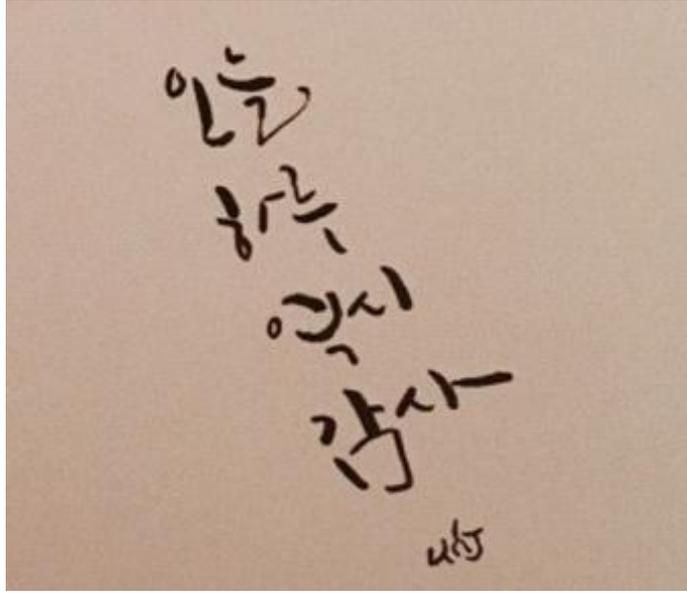
서 분단까지’ 과 ‘제주역사’ 코너가 나와 작은 역사들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일단 난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책을 읽기 전 까지 제주 4.3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무엇이 비극적이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제주는 그냥 우리가 즐겁게 놀고 가는 관광지, 휴양지가 아닌 아픈 역사들을 지닌 섬이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우리가 왜 제주 4.3을 기억해야하는지, 왜 제주 4.3에 대해 알아야하는지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해주는 책이다. 이 책을 보면서 가장 화났던 것은 일본이 아닌 미국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주 도민들을 이용하려고 자꾸 손을 쓰는 게 보는 내내 마음이 안 좋았다. 미군정만 안 들어섰어도 제주가 이정도 까지 비극적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제주 4.3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추천해주고픈 책이다. 제주 4.3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한 대한민국의 비극적이고도 특별한 사건이다.

#타대안

공간 민들레	실상사	산돌	금간고	지혜	온새미
통학	기숙	기숙	기숙	기숙	통학
백늘푸른 이기범	김단오 이지섭 이룡수	김동연 박석현 강규림	강아란 이채영	임소은 여민지	김지후 서지호 최규민



#하루나누기 순서

오늘 하루를 □자로 적기

오늘의 기분을 몇 점? (1~100)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어떤 활동을 했나요?

활동을 통해 느낀 것은 무엇인가요?

— — —

칭찬합시다!

내일 일정 알림

즉석 알림!

“ 06.02 ”

오늘 하루를 □자로 적기

[]

오늘의 기분을 몇 점? (1~100)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오늘 어떤 활동을 했나요?

[]

활동을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었나요?

[]

“ 06.03 ”

오늘 하루를 □자로 적기

[-----]

오늘의 기분을 몇 점? (1~100)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오늘 어떤 활동을 했나요?

[-----]

활동을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었나요?

[-----]

“ 06.04 ”

오늘 하루를 □자로 적기

[-----]

오늘의 기분을 몇 점? (1~100)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오늘 어떤 활동을 했나요?

[-----]

활동을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었나요?

[-----]

“ 06.05 ”

오늘 하루를 □자로 적기

[-----]

오늘의 기분을 몇 점? (1~100)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오늘 어떤 활동을 했나요?

[-----]

활동을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었나요?

[-----]

“ 06.06 ”

오늘 하루를 □자로 적기

[-----]

오늘의 기분을 몇 점? (1~100)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오늘 어떤 활동을 했나요?

[-----]

활동을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었나요?

[-----]

“ 06.07 ”

오늘 하루를 □자로 적기

[]

오늘의 기분을 몇 점? (1~100)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오늘 어떤 활동을 했나요?

[]

활동을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었나요?

[]

“ 06.08 ”

오늘 하루를 □자로 적기

[]

오늘의 기분을 몇 점? (1~100)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오늘 어떤 활동을 했나요?

[]

활동을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었나요?

[]

“ 06.09 ”

오늘 하루를 □자로 적기

[-----]

오늘의 기분을 몇 점? (1~100)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오늘 어떤 활동을 했나요?

[-----]

활동을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었나요?

[-----]

“ 06.10 ”

오늘 하루를 □자로 적기

[-----]

오늘의 기분을 몇 점? (1~100)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오늘 어떤 활동을 했나요?

[-----]

활동을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었나요?

[-----]

“ 06.18 ”

오늘 하루를 □자로 적기

[]

오늘의 기분을 몇 점? (1~100) 이유는 무엇인가요?

[]

타대안학교 탐방 기간 중 기억에 남는 일을 적어 봅시다!

[]

오늘 타대안학교 탐방을 마친 소감은 어떤가요?

[]

#무빙을 마치며 #소감



#무빙 기간 중 고마웠던 사람은? 그리고 왜 고마웠나요?



#롤링페이퍼

